

‘우생우’

〈우리 생애 최고의 우승〉

18세 이하 여자핸드볼팀
31-28 덴마크 꺾고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유럽팀 상대로 8연승
올림픽 은메달 아쉬움 털어내



김진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11일(한국시간)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열린 제9회 세계여자 청소년핸드볼선수권대회 결승전 덴마크와 경기에서 31-28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국제핸드볼연맹 제공〉

한국 18세 이하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전통의 강호 덴마크를 물리치고 세계선수권을 제패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김진순(인천비즈니스고)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11일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열린 제9회 세계여자 청소년핸드볼 선수권대회 결승에서 덴마크를 31-28로 물리쳤다.

18세 이하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이번 대회에서 ‘핸드볼의 본고장’ 유럽 팀들을 상대로 8연승을 거둔 한국은 비유럽 국가 최초로 세계여자 청소년 선수권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에서는 비유럽 팀이 4강 이상에 든 사례도 2006년 준우승, 2016년과 2018년 3위에 오른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1988·1992년 올림픽, 1995년 세계선수권(성인), 2014년 20세 이하 세계선수권에 이어 이번이 통산 다섯 번째다.

전반을 15-15로 마친 한국은 후반 초반 2골 차로 끌려가며 위기를 맞았으나 후반 중반 이후 역전에 성공, 값진 우승을 일궈냈다.

20-22로 뒤지던 종료 17분여를 남기고 김민서(황지정산고)와 이혜원(대구체고)의 연속 득점으로 동점을 이뤘고, 여세를 몰아 김서진(일신여고)의 골로 승부를 뒤집었다.

이후 김서진이 2분간 퇴장을 당해 위기를 맞는 듯했지만 이어진 공격에서 김민서가 오히려 한 골을 추가하며 2골 차로 달아나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었다.

경기 종료 10분을 남기고 김민서의 7m 스로로 27-24, 3골 차로 만들었고 끝까지 김가영(인천비즈니스고)이 고비마다 상대 슈팅을 막아내며 리드를 지켰다. 이날 김가영은 상대 슈팅 36개 가운데 11개를 막아 방어율 31%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평균 신장 168cm, 덴마크는 174cm로 차이가 났으나 빠른 스피드와 많은 패스를 통한 조직적인 공수 움직임으로 승리를 따냈다.

체격과 힘을 바탕으로 한 유럽 핸드볼과 달리 아가사기한 스타일의 한국 핸드볼에 매료된 유럽 팬들과 다른 나라 선수들까지 관중석에서 한국을 응원하는 모습이 국제핸드볼연맹(IHF)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사로 소개될 정도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돌풍의 주역’이 됐다.

32개 나라가 출전한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스위스, 독일, 슬로바키아를 연파했고, 결선리그에서는 루마니아와 네덜란드를 물리세운 한국은 이후 스웨덴(8강), 헝가리(4강), 덴마크 등 유럽의 내로라하는 핸드볼 강국을 연달아 물리치며 세계 무대를 제패했다.

한국은 제1회 18세 이하 세계선수권이었던 2006년 결승에서 덴마크에 33-36으로 패한 아픔도 설욕했다.

또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결승에서 덴마크에 승부 던지기 끝에 분패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은메달의 아쉬움까지 통쾌하게 털어낸 셈이 됐다.

덴마크는 1996년과 2004년 올림픽 결승 등 주요 고비마다 우리나라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핸드볼 강국이기도 하다.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MVP)에는 득점과 어시스트 부문에서 모두 2위에 오른 김민서가 선정됐고, 이혜원이 라이트백, 차서연(일신여고)은 라이트윙 포지션에서 대회 베스트7에 이름을 올렸다.

대표팀은 13일 우승 트로피를 안고 금의환향한다. /연합뉴스

“금메달 아니어도 좋아. 우리 이미 최고야”



유석우 광주시핸드볼협회장 지역 핸드볼 선수·가족 격려

유석우 광주시핸드볼협회장이 지역 핸드볼 선수와 가족들에게 톡톡 식사를 제공했다.

〈사진〉

11일 광주시핸드볼협회에 따르면 유 회장은 최근 빛고를 핸드볼 육성팀 등이 참가한 ‘핸드볼 선수단 격려 만찬회’를 열었다. 광주효동초(여), 광주농성초(남), 조대여중, 조대부중, 조대여고, 조대부고, 광주도시공사 선수단 전원과 협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초등부 선수단 가족들도 특별 초청돼 눈길을 끌었다. 선수는 물론 핸드볼 가족들께 고마움을 전달하려는 유 회장의 뜻이 반영됐다고 핸드볼 관계자는 전했다.

유 회장은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라는 어려

움에도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특히 광주도시공사선수들이 광주효동초 꿈나무 선수들을 찾아 든든한 멘토 역할에 나선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핸드볼인들이 더욱 단합해 더 큰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올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 대한 포상금 전달식도 있었다.

광주효동초와 조대여중은 최근 폐막한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에서 각각 준우승, 3위를 차지했다. 조대부중은 제77회 전국중별선수권대회에서 3위에 올랐다.

유 회장은 이들 팀 감독에게 직접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고 팀 코치들에게는 각 30만원, 광주효동초 100만원, 조대여중 100만원, 조대부중에는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월드컵 D-100, 벤투호 원정 16강 도전

역대 최고 성적은 2002년 4강
2010 남아공 대회서 원정 16강
손흥민 내세워 16강 진출 노력

알 리라(AI Rihla)
아랍어로 ‘여행’을 뜻하며, 고속 비행 가능한 설계로 극대화된 경기 속도 지원

패널(20개)
형태와 질감의 안정성과 정밀도를 위해 폴리우레탄으로 처리

스피드셀 기술
공의 비행안정성과 속도, 회전력을 향상

CRT-코어 (공의 중심부)
형태유지, 공기압, 반발력 극대화

- 공인구 최초로 수성 잉크와 수성 접착제 사용
- 카타르의 문화·건축, 전통 보트·국기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

16강’에 도전하게 됐다. 러시아 월드컵 직후인 2018년 8월 한국 대표팀 사령탑에 취임한 벤투 감독은 한국 축구 사상 최초로 4년을 준비해 월드컵 본선까지 치르는 지도자다.

‘경우의 수’를 따지며 마음을 졸이곤 했던 아시아 지역 예선도 최종 예선 10경기 가운데 8차전까지만 치르고 본선 티켓을 확보했을 정도로 비교적 여유 있게 통과했다.

본선 조별리그에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과 함께 H조에 편성된 한국은 그래도 해볼 만한 상대로 꼽히는 가나를 잡고 우루과이, 포르투갈과도 최대한 승점을 쌓아 16강에 오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무엇보다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상 최초의 아시아 국적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토트넘)의 존재가 든든하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9월 두 차례 A매치를 국내에서 치르며 11월 카타르 월드컵 본선 ‘준비 태세’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피파 랭킹(6.23 기준) 월드컵 본선 진출 횟수 역대 월드컵 최고 성적 카타르 월드컵 예선 성적 한국 상대 전적(A매치) 감독 주요 대표 선수 한국의 경기 일정(한국시간 기준)	28위 11회(10회 연속) 4위(2002년 한일 월드컵) 아시아 A조 2위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손흥민(토트넘 홉스퍼)	9위 8회(6회 연속) 3위(1966년 잉글랜드) 유럽 A조 2위(PO 승 본선 진출) 한국에 1패 페르난두 산투스(포르투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2월 3일 오전 0시	13위 14회(4회 연속) 2회 우승(1930-1950년) 남미 3위 6승1무1패 디에고 알론소(우루과이) 루이스 수아레스(클루브 나시오날 데 풋볼) 11월 24일 오후 10시	60위 4회 8강(2010년 남아공) 아프리카 G조 1위 3승3패 오토 아도(독일, 가나) 토머스 파티(아스널) 11월 28일 오후 10시

자료: 국제축구연맹(FIFA)